

전주 탄소, 세계 탄소산업 중심지 공략

시·전북도·탄소융합기술원, 14일까지 프랑스 개최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 참가 유망기업 6개사와 함께 공동 전시부스 '한국관' 운영... 기업 해외마케팅 자리 마련

전주시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탄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12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박람회

회인 JEC World 2019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탄소 유망기업인 (주)케이엔지과 (주)다인스, (주)비에스엔신소재, (주)세날테크텍스, (주)피치케이, (주)산양사 등 총 6개사와 함께 공동 전시부스인 한

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을 논의하고 박람회 참가 기업 등 국내 탄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수출확대를 위한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그간 박람회에 참여했던 (주)피치케이, Concepturbain, Plas Eco 등 신규 바이어를 발굴했으며, 솔라시도코리아는 지난해 초 독일 Bio Park社와 탄소복합재 기술협력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대한

민국 탄소산업에 대한 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내 탄소기업들이 해외기업 및 기관들과 기술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Asia 2019가 공동 개최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 차량번호 자동인식 구축

내달 1일부터 운영

전주시설공단은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전주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에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수동 출입차시스템은 주차권 출력에 따른 시간 지연과 차량 대기행렬이 대외로까지 이어지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주차권을 분실한 이용객과 요금 실랑이도 종종 벌어지고 정기권차량 태그(TAG) 인식의 잦은 오류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민원 해소뿐 아니라 주차권 미발행에 따른 자원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시스템은 주차장 정문과 서문 출입구에 설치되며 다음달 1일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성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종합경기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전환에 이어 그간 신용카드 미소지 이용객들이 겪어온 주차요금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시가지 주차장 등 7개 주차장에 현금납부 가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고객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전주시로부터 20개 유료주차장과 60개 무료주차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료주차장 총 20곳 가운데 수동 출입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종합경기장이 유일하다. 실내체육관 등 17개소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PDA 인식을 통한 자동 출입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 저감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덕진·완산구, 저감 장비 임대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생활쓰레기 등 소각 단속 강화

연일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놨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덕진·완산구청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적극 시행하고 소규모 공사장과 건물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장비(스프링클러) 임대 사업을 하고있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 전체 경로당 603개소에는 총 894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시는 현재까지 306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상태로 나머지 297개소도 이달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어린이집과 현장근무자들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배부한다.

또한, 각 구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구청은 지속적으로 노면 청소차를 가동해 도로 위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최근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시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에 시민과 공사현장, 일반사업장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성평등기금 지원 2차 공모 18일부터 3일간

전주시는 12일 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2019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성 평등 촉진 사업△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기타 성평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의 4개 분야로, 시는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단체 당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인문학의 장, 올해에도 '활짝'

시, 이익주 교수 초청 열린 시민강좌 첫 강좌 개최

인문학의 향연인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12일 시청강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 열렸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매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지식을 전달해오고 있다. 올해 첫 초청강의는 서울시립대교수이자 한국역사연구회장인 이익주 강사가 '3.1운동 100주년 역사적 의미와 전주시 미래 100년'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강사는 이번 특강에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준비과정 △경과 및 결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전주 지역의 3.1운동 등을 다뤄 대한민국의 과거 100년을 기억하고 현재

를 성찰, 미래를 이끌어갈 역사와 의의와 원동력을 고취시켰다. 이 강사는 기미독립선언서를 시민들과 함께 낭독하며 "3.1운동은 정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민족해방운동"이라며, "현재의 우리 역시 역사적 자긍심과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좌에서는 전통창작악회 '더움'의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시는 시민강좌 우수 소감문을 작성한 시민에게 상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강연 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12일 본관 로비에서 피아니스트 이봉기 교수의 재능기부 독주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피아노로 일상에 쉽표'

이봉기 교수 재능기부 피아노 독주회 열려 환우 정서 안정 위해 '소녀의기도' 등 곡 엄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12일 본관 로비에서 피아니스트 이봉기 교수의 재능기부 독주회가 환우와 내방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선사하고 병원 구성원에게 소소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에 쉽표'를 찍어주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본관 로비에서 열린 연주회는 이봉기 교수의 '환우들 정서적 안정을 위해' 특별히 엄선한 소녀의 기도(파다레프스키), 이별곡(쇼팽), 터어키행진곡(모차르트), 세레나데(슈베르트), 녹턴 2번(쇼팽), 라캄 파넬라(리스트) 등 순으로 곡이 연

주됐다. 이봉기 교수의 감성 연주에 동화된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애틋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재능기부 연주를 펼친 피아니스트 이봉기 교수는 대한민국 음악상, 서울음악대상, 빛나는 악사시인대상,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연주자상, 시베리아국립극장 최우수연주자상을 수상했다. 원광대, 한양대 대학원을 거쳐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졸업했고 전남대 부교수, 예인 음악예술고등학교 교장, 한국 최초 독일 D.A.A.D 장학금을 받고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김영태 기자

사찰서 불전함 턴 40대 검거

사찰에서 불전함에서 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모(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5분경 정읍시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있던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석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